

더 커진 '전기산업엑스포' 혁신기술 총집합

12~14일 대구 엑스코 화려한 막
국내 최대 규모 설비·전력 전시
원전 관련 부스 3배 기업 5배 ↑
한수원·KORAD·한전 등 동참
기업 내수시장 판로 개척 기여

엑스코에서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
와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International Electric Power Industry Expo Korea 2024, 이하 EPEK 2024)'가 12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개최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
는 경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최하고 엑스코, 전기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청정
전기설비 안전&디지털 전력 전환 특
화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발전·송배전·변
전 기자재, 전기 플랜트, 에너지 신사
업, 원자력산업 등 전기전력산업 기
업 130개 사가 참가하며 지난해(360부
스)보다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400부스로 마련된다. 이번 박
람회는 △전기 특장차 특별전 △한국
전력공사·발전사 및 협력기업 전기차
전 △경북도 르네상스 원자력 특별전
△안전 특별전 등으로 구성해 최신 기
술과 제품들을 테마별로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경북도 르네상스 원
자력 특별전'과 '안전 특별전'이 눈
여겨볼 만하다.

경북도 르네상스 원자력 특별전은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국내 원전산업
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년대
비 부스규모를 3배가량 확대했으며
전년(6개 사)보다 약 5배 증가한 28개
사가 참가한다. 주요 참가업체는 한
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 KPS, 두산에너지리미티 등으
로 미래 원자력 기술과 생태계 발전 방
향을 공유한다.

한국전력공사 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안전 특별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안전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
라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 한국전기
안전공사, 창창한 주식회사, 한국전
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청파이엠
티 등 20개 사가 전기전력산업을 안전
하게 성장시킬 기술을 소개한다.

EPEK 2024는 올해도 수출상담회
와 구매상담회 개최해 중소·중견 전
기전력 기업의 판로개척과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12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해외 수출상담회는 일본,
UAE, 말레이시아 등 구매력 높은 해
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시장 다변화
를 지원한다.

(13일) 전시장 내 구매상담회장에
서는 발전사,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문화교류의 꽃 '활짝' 단오(음력 5월 5일)를 맞아 10일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이 경산 자인에서 한국 전통 머리감기인 '향포'를 직접 시연하며 문화 교류의 꽃을 피웠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등 발주처 30개 사의 구매담당자와 참
가업체 간 1대 1 구매상담회를 실시해
내수시장 판로 개척을 돕는다.

이밖에도 전기설비 검사·점검기
(KESC) 특별 세미나, 2024 KEC 적
용 전기사고 예방 기술 세미나, 컨소

시엄 재직자 직무 향상교육 등 청정에
너지 전환·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최신 정보 교류와
전문성 향상에 앞선다.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은 오
후 4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EPEK 누리집
(www.epek.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李 "동해안 유전 시추는 정정보다 '과학'에 초점 도민 공감대 형성 최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최근 논란이
돼 온 경북 동해안 유전탐사와 관련해 페이
스북에서 정정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
련해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안타
깝기 그지없다"며 "자원탐사에 정정보다
과학적 상식적 접근을 통해 산유국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안 유전이 대박났을 때를 대비
해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야당에서는 엑트지오 탐사
회사가 230만원 세금도 못내 석유공사가 대
납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능
성이 없는데 막대한 시추비를 투입하는 것
은 안된다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여당
대로 유전탐사 가능성이 20%라면 역대 성
공한 탐사 유전보다도 확률이 낮지 않는데
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하는 돈 13조원이면 시추를 130회 총당
할 수 있고 예상대로 140억배럴에 2000조원
성공하면 현재 1000조원에 이르는 나라 빛
을 두 번 값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들을 펴
고 있다"고 했다.

동해안 유전탐사와 관련해 "대형사업 관
할 구역인 경북도 입장에서는 과거 동해안
지역 유전탐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으나
실망한 일도 있고 정부에 속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세계 유명
유전탐사의 성공 실패 사례를 들어 투명성
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도 있다"
고 했다. 이밖에 "이번 유전은 20% 확률이
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공감대 형
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지역 관광업체에 숨 불어 넣는다... 최대 20억 지원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실시
17~24일 융자·보조 2분야 모집
파격적 저리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지
원사업(융자·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진행

한 1차 지원사업에서 확인한 많은 수
요에 힘입어 보다 많은 지역 관광 사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1차 지원사업 추진 결과 경북에서
는 융자 사업으로 총 11개의 사업체
중 4개 사업체에 대해 40억원을, 보조
사업으로 총 125개 사업체 중 49개 사
업체를 선정해 약 20억원을 지원하기
로 확정했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1

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 등 관
광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
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원

으로 융자사업에는 20억원, 보조사업
에는 16억원을 배정했다. 2개 사업 모
두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
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
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관광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중
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융자 사업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
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
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
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
여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할 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
지며 융자 사업의 경우 사업체가 있는
시·군 관광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
로, 보조사업은 전용 누리집
(gctog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

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경북도 관광진
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오는 7월 중에 발표한다. 각 사업
의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은 지역만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를 제
공해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며 "이번 2차 지원사업에도
역량 있는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저출생 극복!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도민 행복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펴드립니다.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황명강 의원, 경북 환경·돌봄·인력 내실 제고

제347회 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폐기물 관리·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이주녀 취업·전문가 필요성 강조 도·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주문



고령 등 총 20곳이나 있지만 4개 시·군 10곳에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강화로 노인 돌봄쓰나미 대비해야

황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소위 '돌봄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북형 통합돌봄체계구축, 대상자 발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조직,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자문위원단 구성, 홍보와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안 마련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는 1만8891가구,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1만631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강조하며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이주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등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충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경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촉구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황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 대상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전년도 1단계 하락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하락한 최종 4등급을 받은 데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보도된 구미 초·중학교 모델러교실 불량자재 수급 논란과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평가의 부진한 성적으로 교육환경의 신뢰감 조성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진행상황의 점검을 요구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외명기자p04140@naver.com

문경 봄배추 작황 살피는 농식품부 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4일 문경시 농암면 갈동리에 위치한 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재배농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출산·양육 특화 맞춤형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든다

의원연구단체 용역 착수보고회 기초자료 확보, 전문가 의견 공유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이 지난 7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은 김중우 의원을 대표로 임할, 오상도, 최재필 의원 등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중 출산과 양육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의회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출산·양

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 최혜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배경애 아동청소년과장, 박은주 건강증진과장도 참석해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경주시 인구 기본현황, 경북도·경주시 현안 정책, 타지역 저출산 우수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 출산·양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김중우 대표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에서도 출산 및 양육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가능한 정책의 개발 및 연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상주 공무원 Pick BEST 시의원 2인 '김호·정길수' 선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베스트 시의원 2명을 선정하고 7일 노조사무실에서 기념패 전달식을 가졌다.

상주시 공무원들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으로는 김호 의원, 정길수 의원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정책질의의 합리성 등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원을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더욱 뜻깊다고 볼 수 있다.

김호·정길수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것 뿐인데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상주 시민과 상주시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한국 지부장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른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한 영향력으로 전달돼 상주시 의회가 상주시청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해 상호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환 기자changwan21@naver.com



예천군의회 "TK 통합 공감대 형성 집중"

272회 1차 정례회... 20일까지 예결특위 운영, 주요업무 보고

예천군의회는 10일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분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탁, 간사 장삼

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군정 업무 전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운영 방안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병욱 의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최근 다시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은 경북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천군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흔들리지 않고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끊임 없는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경탁 의원 대표 발의)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예천군수 발의)을 심의·의결했다.

박외명기자p04140@naver.com

'청년 유입'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자

청송군 의원연구단체 용역 착수

청송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청년 정착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5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사회 청년 정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박신영 대표의원,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 윤영경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청송군의 차별화된 지역자원

과 청년 제도를 분석해 청년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과업의 배경과 목적 △과업 내용 △사례 분석 △과업 수행 일정 등 연구 수행의 구체적 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박신영 대표 의원은 "집행부의 청년 정착 관련 부서와 협업해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늘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교육청 '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 본격화

총사업비 180억 투입, 4층 규모
2026년 상반기 개관 목표로 진행
도 교육 역사·성과·비전 총망라



경북교육청은 우수한 교육 사료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북교육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가칭)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칭)경북교육박물관은 누적 방문객 67만명에 달하는 '경북교육사이버 박물관'의 온라인 관람 한계를 극복하고 경북교육의 역사와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경북 지역 교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물관의 위치는 경북도교육청연구원 내 부지로 현재 연구원에서 소장한 1만3000여점의 교육 사료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총사업비 180억원, 지상 4층(부지 3만3794㎡, 총면적 2950㎡) 규모로 오는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

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돼 올해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칭)경북교육박물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박물관 내 공간별 전시와 체험 콘텐츠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북

교육의 발전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경북교육홍보관을 비롯해 테마(주기)별 교육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되는 기획전시관과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경북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실 체험관 등으로 구성해 관람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경북교육의 역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가칭)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교육 역사를 체험하며 역사 인식을 키우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농 어벤져스 '다-Dream 봉사단' 출동

의성 춘산면·다인면서 일손돕기
자두 적과, 양파·마늘 수확 작업

경북도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지난 7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의성 춘산면과 다인면에서 봉사단 50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농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구성된 영농봉사단으로 지난 해부터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병해충 진단 등 현장 애로 컨설팅,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등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병원 입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산면 옥정3리 자두 농가 6612㎡의 자두 적과와 다인면 도암리 고령농가 양파·마늘 2660㎡의 마늘 수확 작업을 도

왔다. 또한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30대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고장점검 후 간단한 부품에 대해 무상 수리를 했으며 자두와 마늘·양파 재배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했다.

해당 농가는 "입원으로 자두 적과를 할 수 없고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 올해 농사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에서 도움을 줘 너무 큰 힘이 됐다"라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다.

조영숙 원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영농철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다-Dream 봉사단"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이군경회 경북도지부, 저출생과의 전쟁 '한마음 한뜻'

22개 시군 지회장·회원 '십사일반' 저출생 극복 성금 720만원 기탁

상이를 입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국가유공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참여해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도회는 10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지방 생존을 위협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22개 시·군 지회장과 회원 487명이 십사일반 모은 저출생 극복 성금 720만원을 경북도에 맡겼다.

경북도는 상이군경회원들의 모금 참여가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도민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인·경찰 공무원으로 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감싸 줄 예우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대 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훈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

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신축 현장 관리 나서

건축사·기술사 등 명예감사관들
시공사 관계자와 합동 점검

경북교육청은 영덕군에 있는 영덕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과 함께 일상감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들은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교육청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 감리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공사 품질확보와 디자인 요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현장관리와 근로자의 보건·안전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영덕도서관은 지난 1994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규모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해 21세기 정보와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신축 도서관 건립이 필요했다.

당초 예정됐던 영덕도서관 신축 용지는 지난 2021년 9월 영덕시장 화재로 인해 임시시장으로 활용 중이며 피해 상인의 형편을 고려하는 동시에 영덕도서관 건립이라는 지역민의 숙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덕군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대체 용지인 영덕읍 덕곡리 109-2에 신축이 확정됐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총면적 3177㎡)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덕통합도서관 신축으로 지역대표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증대와 교육·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농기계 안전교육 책임질 '경북도 안전사절단' 발대식

홍기현 김천대 교수 강의 진행
1100농가 대상 안전 교육 예정

경북도는 지난 7일 김천대학교 그레이스홀에서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44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기현 김천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 강의가 있었다. 교육 내용에는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돼 안전사절단의 역할을 강화했다.

농기계 안전사절단은 기계 설비 및 안전 관련 제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우선 선발해 구성했다. 선발된 안전사절단은 도내 농가 1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한다.

경북도는 농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 수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안전사절단의 농가 방문 안전 교육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워 안전한 경북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바쁜 농업인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안전사절단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전 수칙을 교육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정량 미달·가짜 석유 판매... 경북도, 불법 석유 유통 5건 적발

석유관리원과 한 달간 기획단속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 혐의 입증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경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안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차로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지난 2월부터 경우 36만L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류 유통했다.

B업소는 경우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농산물 절도 '꼼짝 마!' 상주경찰서, 이동형 CCTV 설치

상주경찰서는 블루베리 등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해 희망 농가에 대해 이동형 CCTV를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형 CCTV 지원 사업은 농산물 절도나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설치·대여해주는 사업으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청 또는 '상주경찰서 범죄 예방진단팀'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xawexG)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재홍 서장은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이동형 CCTV 설치사업을 활성화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맘 쉼터 재배한 소중한 농산물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병든 나무, 전문가 진단·올바른 치료해야”

경북,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해 7월 31일까지 홍보, 계도·단속

경북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6월 도입됐으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

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

시에 두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무의 건강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이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나무병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신월성원전 2호기, 정상운전 출력 도달

고장 원인분석, 설비 교체 마쳐

신월성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지난 8일 발전을 재개한 이후 3일만인 10일 오전 정상 운전 출력에 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발전정지된 신월성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고장 원인분석과 정비를 마치고 발

전을 재개했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 정지의 원인이 된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 전동기를 건전한 전동기로 교체했으며 고장 전동기의 고장원인을 분석해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신월성2호기는 지난 8일 오후 1시 34분경에 발전을 재개해 10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정상 운전 출력에 도달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안동 영상정보통합센터, 시민 안전 '매의 눈'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는 20명의 관제요원이 총 3572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4조 3교대의 상시근무체제로 관제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00시 3분경 관제요원 A씨는 평소처럼 CCTV를 지켜보던 중 한 남성이 주차된 승용차 문을 당기는 수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예의주시하던 A씨는 연이어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는 절도범의 모습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고 실시간 이동 경로를 제공해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큰 역

할을 했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는 지난 2월에도 적극적인 CCTV 관제를 통해 자살기도자와 절도 미수범을 조기에 발견하고, 112 신고 및 정확한 이동 방향 제공 등 선제적인 조치로 피해를 막은 적이 있다.

이번 일로 관제요원 A씨는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한 유공을 인정받아 이달 12일 오후 2시에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에서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영천시, 범죄 예방 '힘'... CCTV 설치 확대

우범지역 22개소·농촌마을 50개소

영천시는 각종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나은 행복 영천을 만들기 위해 우범지역 22개소 및 농촌마을 50개소에 신규 다목적용 CCTV 164대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39대도 교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농촌마을 CCTV 설치사업은 2023년에 이어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갈수록 고령화 돼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영천경찰서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처,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

범 등 농촌마을의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완료 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통합 관리로 범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에 안전한 영천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다목적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라며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구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 열어 산업벨트·문화관광·교통망 등 3대 분야 10개 핵심사업안 발표

경주시가 포항시, 울산시 등 해오름 동맹 도시와 상설 협력기구를 구성해 3개 도시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경주시는 10일 오후 울산 동구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퍼레이션센터에서 포항시·울산시와 함께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3개 자치단체 실·국장 등 28명이 참석하고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 방안과 2024년 해오름동맹

핵심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3개 도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설 협력기구로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은 3개 도시가 인력을 파견해 1팀 4명으로 구성하며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을 바탕으로 3개 도시는 광역사무국 출범 준비에 집중하고 핵심사업과 협력사업, 대시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토대로 3대 분야, 10개 핵심사업도 발표했다. 3대 분야 주요 사업은 △단일경제권으로 성장하는 ‘환경경협단산업지대(벨트)’ 구축 △강·산·바다를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조성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조광역 교통망’ 형성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를 통해 울산, 경주, 포항 3개 도시가 다양한 부문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동맹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초광역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3개 도시 간 유기적 발전을 위해 10대 핵심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공동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3개 도시 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풍수해에 발빠른 대처

경주, 토함산 주요 마을에 원격음성경보시스템 설치

경주시는 토함산 자락 주요 마을에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달까지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불국동 하동마을과 문무대왕면 삼방마을 등 2곳에 우선 설치한다.

원격음성경보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장치다. 평상시에는 설치된 LED 전광판과 앰프를 통해 녹음된 음성과 문자가 송출되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피 명령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해 완충 시 10일 이상의 전력을 축적할 수 있어 장마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시정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원격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가 내릴 경우 지역의 기상예보와 산사태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연말까지 안강읍에 ‘시외버스정류장’ 들어선다

전액 시비 17억7000만원 투입 대기실·기사쉼터·차고지 조성

경주시는 안강읍 산대리에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투입해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은 다음달 착공에 들어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안강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2017년까지 민간사업자

가 운영해 오다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간이정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주민은 물론 옥산서원, 흥덕왕릉 등을 보러 안강읍을 찾는 관광객도 시외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공영 시외버스정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해 토지보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은 안강읍 산대리 1526-12번지 일원에 △대기실 △

기사쉼터 △버스차고지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147.03㎡ 규모다.

현재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은 △포항→안강→영천→하양→동대구 노선이 하루 10회 간격으로 △안강→포항 기계 노선이 하루 19회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롭게 들어설 ‘안강시외버스정류장’ 통해 안강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나라사랑’ 마음 담은 하모니, 감동 선사



市 청소년오케스트라 버스킹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 기려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9일 황성공원 춘혼탑 앞에서 ‘나라사랑 버스킹 공연’을 개최해 시민들과 보존가족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Remember Yours’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목넘곡과 현충일 노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개선행진곡, 태극기 휘날리며 OST, 위풍당당 행진곡, Gabriel's Oboe(영화 미션 OST), 희망의 나라로 등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김석규 지휘자는 “이번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단원들에게 나라를 지켜준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주에 임

하하고 의욕을 모았다”면서 “청소년단원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해 줘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 춘혼탑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은 호국보훈의 영령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선물이 됐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하나된 울림으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올 하반기 여름 연주캠프, 독도사랑 버스킹, 제14회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월성동 남산예길 ‘낮달맞이꽃’ 핑크빛 물결로 출렁~

주민 민병석씨가 조성한 꽃길 아름다운 산책 코스 숨은 명소

경주시 월성동의 숨은 명소로 손꼽히는 남산예길에 핑크빛 낮달맞이꽃이 만개해 지나는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이 꽃길은 남산동 주민인 민병석씨가 지역사랑과 관심으로 조성해 계절꽃들을 식재한 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핑크빛 낮달맞이꽃이 만개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km가량 이어지는 꽃길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관광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로 남산동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지인 통일전과 경복전년숲과 함께 아름다운 산책 코스를 제공한다.

이준호 월성동장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자발적으로 계절 꽃을 가꾸 꽃

길을 조성해 주신 민병석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월성동에서도 숨은 명소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름다운 월성동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수산특화! 참바다맛! 경주바다

경주농수산물공동브랜드 경주이사금 ESAGEUM 경주이사금

대구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발생 31% 줄었다

도입 2년째... 사업 효과 '톡톡' 과속방지시설·표지판 등 조성 동촌유원지 일원 3곳 추진 계획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서 지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에 보행자우선 도로를 지정했으며 2023년까지 7개소에 총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 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 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선비춤, 예술적 위상 높은 빛난 성장

실버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바쁜 일상속매주연습해 '결실'

군위선비춤은 지난 2016년 5월 전통 예술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선비춤 및 국악 활동으로 농촌마을의 문화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승범 단장을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한발국악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경희 선생의 지도로 더욱 빛나는 단 체로 성장했다. 군위선비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연습에 매진하며 경북도지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군위생활문화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된 동호회 활동 덕분에 가능했다. 김이수 회장은 "앞으로도 군위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군위군이 대구의 문화 예술적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참신한 아이템으로 '제4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 도전!

여성창업가 14일~8월 9일 모집 참가자상담·교육지원·사후관리

대구시는 예비 여성창업자와 새내기 여성창업자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제4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에 참가할 (예비)여성창업가를 오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지원하고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은 3회에 걸쳐 총 108개 팀이 참여해 최종 24개 팀(예비창업자 15개 팀, 초기창업자 9개 팀)이 선발됐으며 공모전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중 총 27개 팀이 새롭게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태껏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정됐던 참가 자격을 전



국으로 확대해 전국을 대표할 여성창업 경진대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수상자 시상 및 소정의 창업지원금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개 팀(500만원), 최우수상 2개 팀(각 300만원), 우수상 2개 팀(각 200만원), 특별상 2개 팀(각 100만원), 입상 3개 팀(각 3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참여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공모전에 참여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상담과 교육 등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전국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별여성인력개발센터(053-285-1331) 대구별여성창업플랫폼(w-startup.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는 여성창업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을 통해 전국 여성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기량을 키워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자충 달성지회, 6·25 용사 위한 삼계탕 나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8일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을 6·25 참전용사에게 제공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6·25 참전용사 안부맡기, 6·25 전쟁당시 음식 재현 및 사진전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 체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총 연맹회원 30여명이 6·25 참전용사를 위로하고자 달성군 보훈회관에서 직접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또 연로해 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40여명 집에 직접 방문해 식사를 전달하고 안부를 여쭙는 등 소외될 수 있는 참전용사들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충한 기자gst3000@naver.com

대구시, 우울·불안 '씩' 날리는 심리 카운슬링 실시

7월부터 대면 상담 바우처 제공 10월 이후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터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1대 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3

일부터 모집·등록 중이며 시설, 인력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속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기관장(대표자)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외관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마음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도시철도 소식 전할 시민들 모여라~

20일까지 DTRO 기자단 모집 (www.dtro.or.kr)에서 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7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년간 대구교통공사의 다양한 제도·정책 및 성과, 주변 명소 등을 취재해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26일 공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경산 거주자, SNS 활용 우수자, 기자단·서포터즈 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접수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달고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봉화, 재정 위기 극복 위한 국비확보 '안간힘'

국가투자예산 사업 추진 보고회 郡, 임종득 의원실 찾아 지원 요청 K-베트남 벨리 조성 등 관심 당부

봉화군이 중앙부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국가투자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총 47건의 사업(총사업비 7073억원)에 대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임종득 국회의원을 방문해 역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국가투자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총 47건의 사업(총사업비 7073억원)에 대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이날 국회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방문, 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국립산림단 전원 유치 △국지도 88호선 개량공사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군 현안 사업인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 △감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박현국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는 우리 봉

화군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이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바살운 영양·봉화군협, 소통으로 상생·협력

친선교류행사 회원 70여명 참석 화합의 자리로 '이해의 폭' 넓혀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는 지난 7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문화교류, 인적교류 및 화합도모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와 친선교류행사를 수비면 청소년수련원 및 자작나무숲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류행사에는 70여명의 영양군과 봉화군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행사, 자작나무숲 방문, 선물교환, 양 협의회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인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

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 운동을 전개해 영양군과 봉화군이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안형욱 영양군협의회장은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화합의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겠다"라며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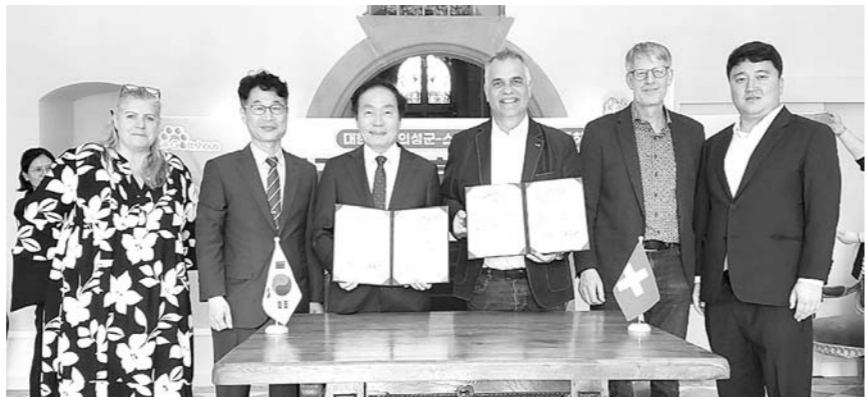
오도창 군수는 "양 협의회가 친선교류행사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영양군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김주수 군수 "주민 주도 변화·혁신 통한 행복 의성 실현"

스위스 지자체와 국제교류 협약 교육·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의성군은 지난 4일 주민자치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 하우프트빌-고트하우스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정비교류 우호협력의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하우프트빌-고트하우스는 투르가우주의 80개 보통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하우프트빌'과 '고트하우스'의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지역이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종합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시·군·자치구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현재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청소년이 고령자보다 많고 1·2·3차 산업이 고루 분포해 실질적 실업이 없는 건강한 연령 및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의성군과 스위스 하우프트빌-고트하우스는 △지방자치정

책 △주민참여 △교육·학급 △환경·경제 △문화·스포츠·여가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게 된다.

의성군은 중국 함양시, 몽골 만달군에 이어 중부 유럽인 스위스와 세 번째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주수 군수는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정착된 스위스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운영 원리, 주민들의 사고방식 등을 학습하고 주민 주도의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 수돗물, 도청신도시·예천에도 '깔깔'

시설개선 완료, 1일 생산량 증설

안동시는 수돗물 1일 생산량 9만3000t에서 10만3000t 증설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도청신도시 및 예천군에 안정적으로 상생수를 공급하게 됐다.

시는 도청신도시 및 예천군에 상생수를 공급하고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 에 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용상1취수장의 반변천 집수매거를 217m에서 430m로 증설하고 용상1정수장의 기존 여과지(상생수 정수 모래 필터 설비)를 4지에서 6지로 증설했다.

이에 따라 상생수 생산량이 2만에서 3만t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5일부터 상생수를 증산했다.

또한 시설 증설에 따라 지난해 수해에 따른 예천취수장의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동시에서 추가로 1일 4000t을 공급하고 있다.

임정훈 맑은물관리과장은 "안동시 및 인근 지자체(의성군, 예천군·청송군·영주시 일부)에 안정적으로 상생수를 공급해 각 지자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달고 달디 단 '예천 용궁면 꿀수박' 드세요 마성면 버드힐 문경 컨트리클럽 '개발 본격'

맛·당도 탁월, 소비자 선호도 ↑ 농기센터서 농업인에 기술지원

예천군 용궁면에서 아삭하고 달콤한 '꿀수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됐다.

수박 첫 출하 지역인 예천 용궁면은 44ha 이상의 대규모 수박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오랜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200여 농가가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맛과 당도가 탁월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특히 예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박 과정'을 개설해 농업인에게 전문기술을 교육했으며 적기 현장 기술지원과 수정벌 공급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정호 소장은 "용궁면 수박은 당도가 매우 높아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매력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지난 7일 '마성면 외어리 버드힐 문경 컨트리클럽'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했다.


지난 2022년 문경시와 시행사(주)비에이치엠이 MOU 체결 후 추진하는 버드힐 문경 컨트리클럽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위치하고 총면적 910334㎡ 규모로 골프장 18홀과 골프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허가된 골프장 부지는 지난 2010년 봉황산업단지로 착공했으나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

던 현장으로 산림 및 자연경관이 훼손돼 지역의 격경거리였으나 이번 골프장 개발로 인해 친환경 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희 도시과장은 "우리 문경시에는 18홀 규모의 문경골프장 한 곳만 운영돼 골퍼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버드힐 골프장 개발로 지역 골프 수요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수도권 골프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틈새 없는 촘촘 복지 '새 희망 구미시대' 실현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 '눈길' 복지급여 614억... 생활 안정 만전 자활근로사업·공영장래지원 등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큰 기여

구미시가 틈새 없는 촘촘한 복지로 모두를 아우르는 새 희망 구미시대 실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는 모두 1만3357가구 1만8437명(전체 인구 대비 4.5%)이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614억원(생계급여 485억원, 해산 장제급여 30억원, 의료급여 48억원, 자활사업비 51억원)을 편성해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 위해 19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 현재 2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탈수급 및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원두 가공과 커피를 판매중인 카페 클라우드는 뛰어난 품질, 맛과 함께 엄선된 공정 과정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도청, 타 지자체에 원두를 납품하고 있으며 달인의 짬뽕은 배달 전문점인 2호점을 신규 개소에 기업 연계형 자활근로 사업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밀반찬 판매 사업단인 '오늘의 찬스'가 신규 개소를 준비 중이며 '운동화 빠는 날'은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클리닝 슈즈데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올해 2131명을 대상으로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자 폭이 넓은 저소득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시 공영 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장래비 지원과 함께 장례 의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18일 순천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래 지원을 처음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6건 지원했다.

제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구미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 복귀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큰사량요양병원, 구미강동병

원, 강동요양병원 의료기관 3곳과 협약을 체결, 식사 제공기관 5개소(오늘반찬, 우리반찬, 동해반찬, 인동반찬, 할매반찬)와 돌봄 제공기관 5개소(행복재가, 은빛재가, 구미재가, 효구미재가, 구미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1인당 월 60만2530원 이내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9명의 대상자에게 제공 중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48억원을 다양하게 지원해 시민 건강증진과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회안전망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를 아우르며 꼼꼼하게 보살피는 새 희망 구미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상주,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공감대 '쑥쑥'

29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 마무리 강영석 시장 현장 찾아 관계자 격려

상주시는 지난 1972년 UN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carpos) 상주시지회 회원 및 상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해 후천교 하단공터에서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총 45대의 자동차를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소모품 무

료 교체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차량의 자율 점검을 유도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 생활실천 캠페인 및 환경변화 사진전을 개최하고 △탄소줄이기 서명운동 △정화식물 심기 △EM 흙공 만들기 등을 시행해 시민들의 환경보호 필요성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강영석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묵묵히 시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데 대해 크게 치하하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창완기자changwan12@naver.com



성주 이재호 주무관, 조세채권 조기확보 '주목'

체납세 분야 토론회 최우수상 공매처분 통한 체납징수 소개

성주군 이재호 주무관이 지난 3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인 '2024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에서 지방세 체납세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군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체납세 징수업무의 선진 기법을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과제 발표자간 시·군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다른 토론참가자도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성주군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큰 조세채권 조

기확보'라는 과제명으로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징수의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병환 군수는 "2024년 지방세 종합평가 대상 및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더 자주제원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일호기자hoya1515@daum.net

고령 사랑의열매 봉사단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된 에너지취약층 돌봄 앞장

고령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정수환, 명예단장 이경화)은 지난 9일 대가야역사공원에서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대가야시장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물품과 음료를 전달하며 캠페인을 널리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은 폭염 등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으로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성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ARS 기부 (060-702-1004), 문자기부 (#9004),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54-950-6231-6233) 및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정수환 단장은 "하절기 폭염으로 어

려움을 겪으시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철 군수는 "이번 활동으로 '희

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이 널리 전파돼 폭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1515@daum.net

폐현수막, 미래 생각하는 '장바구니'로 변신

구미시, 재활용 사업 시민 호응

구미시가 폐현수막 장바구니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섰다.

시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6000개를 제작해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에 배부,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오산 울레길 산책 후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빈도가 높은 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 점을 감안해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캠페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으로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고 구미지역자활센터에서 고용인원 6명이 세척 과정을 거쳐 재봉틀로 장바구니를 제작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바구니는 지난달 총 4회에 걸쳐 1200매를 배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김천시, 건강한 노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김천시는 지난 7일 대덕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대상 노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외로움 극복을 위해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65세 이상)의 자살률은 연간 38명으로 OECD 평균 11.1명의 3배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서는 건강(23.7%), 경제적 어려움(23.0%), 외로움(18.4%)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층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를 통해 정서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심상별곡 강사 기용아제의 특강 및 색소폰 연주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외로움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로 전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경주시수협 황성지점
지점장 김윤정

경주시 황성로 11
☎ 054-771-0604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2024 경산자인단오제, 큰 즐거움과 감동 선사

밤하늘 화려하게 수놓은 드론쇼
경산의 독특한 단오 문화 체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즐겨

국가무형유산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개최된 '2024 경산자인단오제'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단오제는 마술쇼, 경산청소년 합창단, 팬텀플레이먼스, 대학생 댄스 공연, 대학 장사 씨름대회와 전통 무형유산 공연, 현대무용, 지역 예술단체·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단오제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개막식 후에 펼쳐진 드론 라이트 쇼는 단연 큰 호응을 얻었다.

드론이 펼치는 불빛의 향연은 경산자인단오제와 상생 그 이상으로 피어나는 경산을 형상화해 계정숲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 여러 나라의 복식을 한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진행된 창포머리감기 시연 또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단오날인 10일에는 자인면 시내를 한 바퀴 돌아 한장군 사당인 진종묘까지 가는 호장행렬과 한장군대제, 여원무와 팔광대 공연, 단오굿을 하루에 모두 몰아볼 수 있어 축제의 마지막까지 경산의 독특한 단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24 경산자인단오제'의 재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계정숲을 찾은 관람객들은 팔씨름대회에 참가하고 창포머리감기, 부채만들기, 그네뛰기, 캐릭터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쉴 뽐냈다. 캐릭터 앞에서 인생 두 컷 사진을 남기고 수묵이 우거진 계정숲 산책로를 걸으며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 단오(음력 5월 5일)를 마음껏 즐겼다.

조현일 시장은 "비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통문화를 이어가며 미래를 도모하고 더욱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경산자인단오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단오제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포항 호미반도, 새하얀 메밀꽃이 '활짝'

해맞이광장 옆 바다와 함께 감상
해바라기도 조성 불거리 더 풍성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조성된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에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는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해마다 10만평 이상의 유채꽃, 유채보리, 메밀꽃, 해바라기 등 다채로운 불거리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는 약 50ha(1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대규모 메밀꽃 단지는 해맞이광장 바로 옆에 조성돼 있어 동해안의 바다와 함께 순백의 메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호미곶 경관농업 단지의 메밀은 지난달에 파종하고 이달부터 만발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메밀 외에 해바라기도 조성하고 있어 불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포항시는 특색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면서 도시민의 불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관작물을 활용한 포항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창출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채꽃에 이어 메밀꽃도 성공적으로 개화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영천 로컬마켓으로 청년 창업가 육성·발굴

40여개 체험부스·심리검사 제공

영천시는 청년창업가의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청년 문화예술가의 무대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8일 2024년 1회차 영천시 청년고리 로컬마켓을 영천강변공원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고리 로컬마켓은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된 마켓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년고리 로컬마켓은 영천강변공원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마술쇼, 태권도 격파 시범, 버스킹 외에도 40여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공예 체험, 무료 심리검사 등) 및 청년창업가가 직접 만든 먹거리(베이

커리, 디저트, 분식)와 소품(유리 및 매달 공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방문객 및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영천시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연중 3회 청년고리 로컬마켓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육성 및 발굴해 청년이 주역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청년들의 열정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청년창업가와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isy9220@hanmail.net

알찬 노년 만드는 '청도온누리대학'

13기 개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11명 초과 등록, 어르신 '큰 호응'

청도군은 지난 5일 2024년 제13기 청도온누리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12기와 마찬가지로 제13기 청도온누리대학은 어르신들의 지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매주 수요일 총 13주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기수가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의 배움을 향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원 40명에서 11명을 초과해 51명이 수강등록을 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강식에서 김하수 군수는 "청도온누리대학에서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익히고 발전시켜 앞으로의 노년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독도사랑 가슴에 품고... 해안 비경 달렸다

독도지킴이 울릉도 마라톤 대회
이경섭·권효정 풀코스 1위 차지
의용수비대 승고한 애국심 돼세거

제19회 독도지킴이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약 58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울릉군에서 개최됐다.

울릉로타리클럽과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는 독도지킴이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는 우리 민족의 섬 독도를 지켜낸 독도 의용수비대의 승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대회코스는 모두 울릉문화예술체험장(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울릉순환도로를 반시계방향으로 달려 섬을 일주하는 풀코스(42.195km)와 시계방향으로 달려 각 반환점으로부터 되돌아오는 하프코스(21.0975km)를 비롯한 10km, 5km의 단축코스도 운영됐으며 주일 및 전국마라톤동호회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 남자부 이경섭, 여자부 권효정 △하프코스 남자부 강기필, 여자부 강운영 △10km 남자부 신성일, 여자부 추은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울릉경찰서 및 울릉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 당일 교통통제를 지원했으며 앞서 지난 5일 교통 요원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를 찾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에메랄드 빛 해안을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 코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울릉군의 홍보대사가 돼 달라"며 "행사진행을 위해 힘을 합쳐주시는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울진군 "먼저 인사하는 것이 친절의 시작"

사회복지시설·기관장 대상 교육

울진군은 지난 7일 지역 내 12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먼저 인사하기' 실천 운동 홍보 및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이 공직 내·외부에 먼저 인사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4 '먼저 인사하기' 운동 총력 추진계획(5대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달 미용업 기준 영업주 및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품격있는 리더의 친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원들의

고객(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기관장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우리 기관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친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이 먼저 친절해야 함을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기관 단체 간담회 및 각종 행사 시 '먼저 인사하기' 실천 운동 홍보와 교육을 연계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분위기 확산을 통해 울진군의 변화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인사는 관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으로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먼저 건네는 인사, 단 몇 초의 시간으로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기자ksi09102@naver.com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

경주시 원화로 306(성동동 5층)
☎ 054-777-2666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의성군, 귀농·귀촌인 새 삶터로 위상 높였다

우수지자체 농촌진흥청장상 맞춤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 혁신성·주민만족도 UP 성공적 정착 위한 노력 '성과'

3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에 빛나는 의성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혁신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의성군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정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단밀면 생송리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17억원을 들여 예비 귀농인들이 영농 준비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의성새내기행복충전소 10개소를 새로 조성하는 등 귀농인의 집 28개소(6개소 추가 조성 예정)를 전국적 규모로 보유, 운영 중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의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의성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화교류 통해 '봉화 K-베트남 밸리' 널리

한-베 문화교류축제 성황리 종료 관광자원 연계한 지역 홍보 효과

봉화군이 지난 7-9일 봉화군 일원에서 진행된 '2024년 한-베 문화교류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봉화군과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한-베 문화교류축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봉화군 역점 추진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설명 및 홍보, 봉화군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전국에 봉화와 K-베트남 밸리를 알리고자 개최됐다.

이날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진행된 한-베 문화교류 축제는 환영사

및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국립백두대간 하이킹, 베트남 먹거리 야시장, 우리가 꿈꾸는 K-베트남 밸리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먹거리 야시장에서는 바나나칩을 활용한 라이스 쿠키, 바나나 로피 등 특색있는 간식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이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도 펼쳐졌다.

박현국 군수는 "우리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문화교류를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축제를 계기로 참가자들이 봉화에 대해 깊은 호감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형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교육청, AI로 여는 미래교육으로 학생 창의력 '쑥쑥'



지역 중학생 190명 등 210명 동참 LG디스커버리랩 부산 견학 나서 창의적 사고·문제해결 능력 육성

경주교육지원청은 10일 LG디스커버리랩 부산에서 '경주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2024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래현장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AI로 여는 미래교육을 체험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경주 지역 내 중학생 190명과 지도교사 20명 등 총 210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직접 체험해 미래 진로 탐색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과 18일 2차례 더 진행된다.

체험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로봇,

AI 기계투데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동작과 과정을 경험했다.

이번 현장체험교육에 참가한 경주여중학교 김모 학생은 "스마트팩토리 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 AI가 제품의 불량률 자동으로 판별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AI 체험교육

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주 지역 내 중학생들이 첨단기술과 산업 현장에 직접 체험하며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주 기자seoul411@hanmail.net

"편견·차별 OUT"... 경북지체장애인협 청송지회, 홍보 캠페인

장애인 권익향상 위해 출신수범 차별없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에서 지난 5일 현동면 도평시장에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모두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에 오신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홍보하고 알리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여성자립지원사업, 복지지원 사업에서는 여성 인권지킴이단 단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캠페인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시장을 찾은 지역주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상인들에게 좋은 호

응을 얻었다. 홍보물품 배부 및 행사장 행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편견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강희수 지회장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의 사업 홍보 및 인권지킴이단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대 돼 차별없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남김천로타리 15대 회장 취임축하살 기탁

남김천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대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백미 40포(20kg 20포, 10kg 20포 1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남김천로타리클럽은 지난 5일 열린 제14·15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의 미로 받은 백미를 기부했으며 기부받은 백미는 대곡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주선 회장은 "취임 축하 선물이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재수 회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받은 쌀을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남김천로타리클럽은 해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마을 개선사업인 김천 행복마을 자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경주시시설관리공, 신규 9인 공채... 21일까지

블라인드·고졸 인재 적극 채용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신규 수탁사업 증가와 결원 보충에 따라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규직원 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일반직 4명(행정 2명, 기술 1명, 기록물 1명)과 업무직 5명(시설보조 3명, 주차·매표 2명) 등 총 9명으로 특히 이중 업무직(시설보조) 1명은 정부의 고졸인재 적극 채용 권유에 따라 고졸 제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 전 과정을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해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gjfmc.jobnlab.co.kr/)를 통해 온라

인오로만 접수하고 채용전형을 서류심사, 인성검사, 전공시험/NCS직업기초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이사장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성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박성진 기자wba112@daum.net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 - 3517 - 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지역과 함께, 전국 고객 가까이”... 대구은행, i뱅크로 ‘새출발’

DGB금융그룹, 새 CI 선포식 개최
지역 맞춤형 금융 추진 등 포부 밝혀
기부플랫폼 ㈜체리와 현장기부
창립연도 기리며 1967만원 전달
홍보대사 신애라 축하 영상 ‘눈길’



DGB금융그룹은 지난 5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시중금융그룹으로의 새출발에 발맞춰 ‘그룹 NEW CI 선포식’과 주력 계열사인 i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에 따른 ‘본점 간판 재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i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새로운 사명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적용한 간판을 대외적으로 처음 알리는 자리로 지역민 및 임직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김철호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장, 박윤경 대구상의회장 등의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병우 회장은 “전국구 시중은행으

로 재탄생한 i뱅크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는 뜻을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 디지털 접근성, 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갖춘 지역은행의 장점을 발휘해 대구에 본점을 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고객을 위한 관계형

금융 확대 및 전국 점포망 구축, 개인고객을 위한 디지털을 통한 편리한 상품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 핀테크사와의 개방적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 지역사회와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추진 등 시중은행 전환을 맞는 포부를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홍준표 시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대구은행의 지역은행 최초 시중은행 전환을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하면서 “전국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TK신공학과

달빛철도 건설 등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날 처음 대외적으로 공개된 NEW CI는 시중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함과 동시에 지난 57년간 지속가능경영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온 DGB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반세기기를 이어온 기존 심벌을 재해석해 DGB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Boundless

(경계가 없는)’와 ‘Go Beyond’를 반영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또한 전 계열사의 iM 브랜드 일체화를 통해 전국의 고객과 함께할 새로운 금융그룹의 미래와 희망을 시각화했다.
CI의 좌측 직사각형은 소문자 ‘i’를 연상시키며 ‘나에게 맞춰진 똑똑한 금융’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중간에는 ‘M’의 포개짐을 형상화하며 ‘따뜻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푸르른 ‘새싹’의 이미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의 날갯짓’ 이미지를 중의적으로 담아 새로움과 미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더욱 적극적인 ESG 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부플랫폼 ‘㈜체리’와 함께 현장 기부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플랫폼 ‘체리’와 협력해 i뱅크 앱 내 ‘기부하기’ 기능을 신설했으며 누구나 손쉽게 나눔 기부를 진행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i뱅크의 사명 변경 및 CI 발표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의 현장 기부액에 더해 은행의 최초 창립 연도인 지난 1967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총 1967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모금액은 자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야나’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며 야나 홍보대사인 배우 신애라가 시중은행 전환 축하 영상 메시지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순서로 ‘전국 고객의 빛이 돼줄 하이브리드뱅크’의 의미를 담고자 수성동 본점 전체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과 스카이빔 쇼를 진행해 새로운 iM의 출발을 축하하는 선포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핵심 계열사인 i뱅크는 지난 5월 16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비은행 계열사 역시 같은 날 정관 변경 시행해 5일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상호 및 CI를 적용하게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출산장려금 1억 쏜다... 부영그룹 ‘2024년 공채’ 16일까지 접수

분야별 총괄·경력·신입 모집
외국어 능통자·기능자 우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지원 자녀 출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분야별 총괄 책임자 조빙과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이번 부영그룹 채용은 분야별 총괄 책임자 조빙의 경우 건설부문, 영업부문, 재무부문, 관리부문, 레저부문에

서 이뤄지며 경력 및 신입 직원 모집부문은 기술 부문을 비롯해 홍보, 기획, 법규, 재무, 해외사업, 전산을 포함한 관리부문과 레저부문 등이다.
공통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졸업 예정자 가능)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이며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능력 및 기능자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부영주택 및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전국·해외의 관계사로 배치

할 예정이다.
서류 전형 일정은 10일에서 오는 16일까지로 부영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정보나 문의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www.booyoung.co.kr)를 참고하면 된다.
출산장려금 외에도 부영그룹은 사내 복지로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

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23만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의 인식 변화와 국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1조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명실상주물 덕후되면 할인 혜택 ‘팡팡’

구매누적 기준 회원등급별 쿠폰
매주 수요일 ‘수상하데이’ 기획전
상주시는 이달부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물(sjmall.cyso.co.kr)’에 경북도 내 최초로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명실상주물’은 경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통합 운영 중으로 지난 2022년 출범 후 1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등급 산정은 해당 월 직전 6개월간 ‘명실상주물’ 누적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일반, 실버, 골드, VIP의 4등급으로 나눠 운영한다. 실버등급은 20% 쿠폰 2매, 골드등급은 20% 쿠폰 1매와 30% 쿠폰 1매, VIP 등급은 20% 쿠폰 1매, 30% 쿠폰 1매, 40% 쿠폰 1매가 자동 발행된다.
회원등급과 자동 발행된 쿠폰, 이용 방법은 쇼핑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등급별 멤버십 제도는 올해 11월까지 운영(10월 말 실적 기준)된다.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11월-12월 구매실적은 다음 해 1월 회원 등급산정시 합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좀 더 알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쇼핑몰은 명실상주물 덕후를 확보하면서 정기적 방문을 유도해 매출을 올리며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금액 특별 할인쿠폰(3중)과 신규회원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매주 수요일에는 주간특가 행사인 ‘수상하데이’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짧은 기간 급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명실상주물 덕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주 농특산물을 좋아하는 팬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좋은 농특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한수원-美 전력연구소, 기술협력 워크숍

비파괴검사 적용 방법·현황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 전력연구소(EPRI) 프로그램 비파괴검사분야 기술교류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1972년 설립된 EPRI는 전 세계 전력사, 에너지산업체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전력연구소다. 한수원은 2008년 EPRI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원자력 분야 멤버로 가

입했으며 해마다 프로그램별 기술 교류와 각종 연구에 참여해 글로벌 R&D 역량을 습득하고 선진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EPRI 회원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비파괴검사 적용 방법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수원이 개발한 ‘원전 가동중검사 종합 관리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수원은 이번 워크숍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EPRI



와 원전 운영 및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설비의 안전성

을 높이기 위해 비파괴검사 등 각종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EPRI와의 협력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칠곡군 CHILGOK GUN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QR 코드: 기부 바로가기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시사문경 '문화경서 전국 백일장'



시사문경에서 준비한 '제2회 문화경서 전국 백일장'이 지난 8일 문경시 모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백일장의 주제는 '문경 돌리네 습지'로 오전부터 치러진 백일장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부문별 진행됐다.

김태욱 한국문인협회 문경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각 6명씩 시상했다. 또한 초등부는 54명, 중고등부는 23명, 일반부는 각 116명이 신청해 각 부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씩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의성, 다문화 음식체험 교실 운영



의성군은 지난 7일 군민 및 외국인 거주자 대상으로 다문화 음식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안계행복플랫폼 공유부엌 활성화 및 외국인 거주자들의 자국 음식을 군민들과 함께 만드는 교류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지역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날 8명의 주민들과 2명의 강사(외국인 거주자)들이 자국(베트남)의 음식을 만들며 서로 간의 편견을 줄이고 교류의 장이 됐으며 이날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회차(베트남 3회, 필리핀 2회, 중국 2회, 태국 2회, 캄보디아 1회) 동안 각 국가별 요리법 교육 및 레시피 공유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경주 신라중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성료'

동문 300명 참석 성대히 개최
한주식 동문, 장학금 1천만원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신라중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모교 교정과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욱 총동창회장(19회)을 비롯해 경향각지에서 모교를 찾은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제44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곧이어 교정에서는 모교애와 동창애를 바탕으로 동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기념행사 '대신라 이름 그대로 실하거라 빛나라 아름답거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어 3학년 김재준 학생 등 1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30만원씩 동창회장학금도 지급했다.

제10대 김상욱 총동창회장은 기념사에서 "1954년 6·25전쟁이 휴전되고 1년도 안 된 혼란한 시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인재육성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그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하며 공립 신라중학교의 탄생 배경을 밝힌 데 이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확립해 오신 역대 회장단과 동문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에서는 한주식(7회), 문성현(7회), 손창배(19회), 진우룡(24회), 배진석(34회) 등 평소 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에 대한 수상식이 열렸는데 한주식 동문은 수상자를 대표해 "여러모로 힘든 시절을 꿋꿋하게 견디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모교와 동창회가 자랑스럽다"는 인사말과 함께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해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김천 운남교회, 이웃에 따뜻한 온기 나눔

김천복지재단은 지난 7일 운남교회로부터 성금 715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운남교회는 올해 112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교회로 지역과 함께 역사를 써 내려오고 있으며 해마다 사랑 나눔 알뜰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삶에 행복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영은 담임목사는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값진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섭 이사장은 "이러한 기부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본보기가 돼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봉화보건소, 미래세대 지키는 금연 캠페인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7일 봉화상실시장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 대상으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봉화 지역주민과 방문객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

해 금연 의지를 높이고 흡연 유혹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

또한 군은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상주 공무원, 공유재산 업무 역량 강화 '힘'



상주시는 지난 7일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법령과 제도,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실무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동 정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참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제347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문무대왕면 산사태 시찰·안전 당부



주낙영 경주시장은 11일 오전 10시 문무대왕면 일원 산사태 위험지역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활성화 상생협력 MOU



박남서 영주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소백산생태탐방원서 열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MOU



최기문 영천시장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시장실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웃돕기 현물지정 기탁식 참석



오도창 영양군수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웃돕기 현물지정 기탁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초청공연 눈길



예천통명농요보존회는 지난달 25일 몽골 울란바토르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진행된 국제부티아트대회 축하 공연에 참석했다.

이 공연은 제3회 국제부티아트대회를 축하하는 자리에 국가무형유산인 예천통명농요가 초청되면서 이뤄졌다.

공연은 모심기마당(아부레이수나와 도움소소리)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행사관계자와 몽골 현지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예천통명농요보존회는 수년간 국내외 각종 공연행사에 초청돼 20여차례의 공연을 펼치며 예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초인이 주신인 봉화
희망찬 봉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봉화군 - 기부자 - 지역생산자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iM뱅크(대구은행) 고령지점에서 지난 7일 군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교육발전기금 249만원을 기탁했다.

iM뱅크는 지난 5일 지방은행에서 전국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로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종명 지점장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고령군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계속된 관심과 모금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현덕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밤 군수는 iM뱅크(대구은행) 고령지점에 고마움을 표하며 "지역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군민 하나된 청도읍성 음악회 '성향'



청도군 화양읍이 주최한 '청도읍성 음악회'가 지난 8일 청도읍성 일원에서 주민, 관광객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도읍성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랑고장구, 지역 음악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노래 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행사를 가득 채웠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동명 읍장은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화양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hartmona0@naver.com

대구보건대, 디옵스 영상 콘텐츠 제작 경진 시상식

안경광학과 학생 제작 영상 '눈길'
김준·배남희·장운정 학생 '대상'



대구보건대학교 Hi-FIVE HiVE센터 안경학사업단은 지난 7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디옵스(DIOPS) 영상 콘텐츠 제작 아이웨어 어워즈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사업)의 지역 특화사업인 안경산업과 대구국제안경전 디옵스(DIOPS)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디옵스를 참고하고 직접 영상을 제작해 진행했다.

안경광학과 1, 2학년 재학생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대구국제안경전 디옵스를 참관했다. 54명이 7개 팀을 구성해 영상을 촬영하고 팀별 약 2

개월간 편집과 제작을 실시했다.

심사는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들이 맡았으며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기획과 구성, 시연 영상 평가를 통해 선별했다. 그 결과 1학년 김준·배남희·장운정 학생팀이 제작한 '안경광학과에 조별과제러니' 영상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1학년 김준 학생은 "영상을 제작하며 디옵스에 출품된 최신 안경 기술과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경험으로 안경광학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고 앞으로 실습을 통해 국민 눈 건강에 기여하는 훌륭한 안경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장준영 센터장(57·안경광학과 교수)은 "지난해에 이어 각종 안경산업 관련 행사에 참가해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의성, 올바른 칫솔질로 구강건강 챙기세요~

의성군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일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주관(6월 4일~10일)인 지난 7일 5일장을 맞이해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O·X 퀴즈 등 구강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음안심서비스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및 치매선별검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법 등의 홍보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천농기센터, 농작업 위험 요인 예방 '앞장'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시범사업 대상인 금호읍생 활개선회(회장 박분숙) 회원 15명이 참여해 농작업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전동식 포도 일송기 장비 및 농작업 안전화 등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작목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 상담, 안전 재해 예방 교육, 농작업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지원한다.

정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영천 북안면, 일손 부족 농가 지원 '팔 걷어'



영천시 북안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7일 북안면 송포리의 한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번기로 일손이 부족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 이른 아침부터 포도 순치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

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가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했지만 일손 부족 등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면에서 나와 직원들이 내 일처럼 도와주시 작은 힘이라도 큰마음을 받은 것 같아 고맙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상주시장 "고귀한 희생 기억해야"



상주시는 지난 6일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정각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겠다"라며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귀농 최적지 상주' 널리 널리~



상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상주시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해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등 상주시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소개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가기 △상주시농생장 운영 사업 △이안면 두지역 살기 운영 사업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상주 쌀, 오이, 꽃감 등 지역의 우수 농산품과 가공품들을 전시하고 상주시가 가진 지리적 강점과 잘 갖춰진 농업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귀농 최적으로 상주를 알리는 데 역점을 뒀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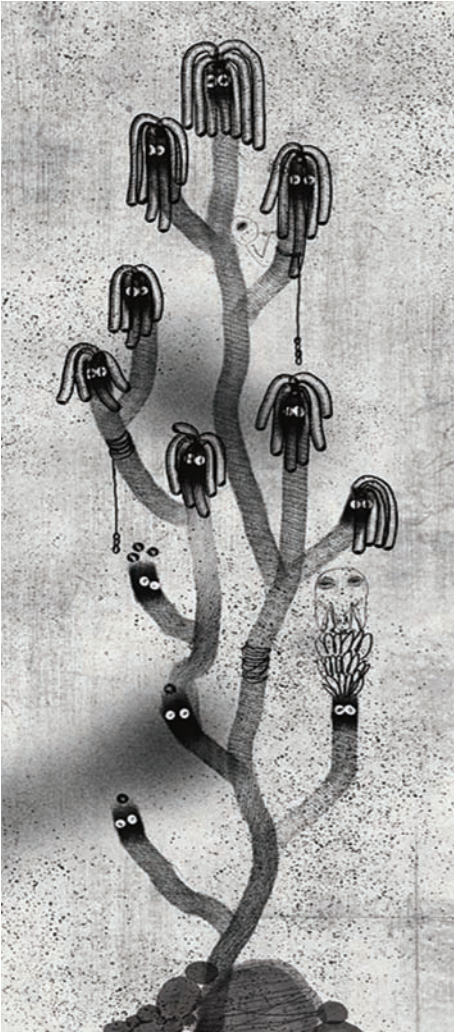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농담으로 새겨진 '천년고도 경주' ... 플레이스 씨 특별전



9월 8일까지 '무여 문봉선' 전시
남산송림 등 지역문화·경관 담야
생명력 넘치는 수목화 매력 선보

떡과 물만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표현한 무여 문봉선 작가의 특별전시회가 플레이스 씨(Place C, 경주시 국당2길 2번지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문봉선 작가가 경주의 자연을 수목으로 형상화한 대규모 작품들을 한 곳에 모은 개인전 '떡, 바람 : 무여 문봉선 경주 그림'은 이달 6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그동안 경주에서 볼 수 없었던 메가 스케일 규모의 전시를 통해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하고 있는 플레이스 씨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



삼릉상선암대불.

시장을 운영한다.

무여 문봉선 작가는 떡과 물이 만나 수목화를 이루고 운필을 통한 종이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지나면 수



경주 남산 송림.

묵화의 추상성과 깊이 있는 세계로의 진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문 작가는 "떡은 3000년 역사를 관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만큼 그 생명

은 영원무궁할 것이며 그것은 동양회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하며 "검은 떡과 물이 만나 수목이 되고 운필을 통해 하얀 종이 위에서 생명을 뿜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는 "수묵화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깊은 경지에 쉬이 도달하기 어려운 추상성을 지녔지만 또 어느 순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게 한다"라고 수묵화의 매력을 설명했다.

이번 '떡, 바람 : 무여 문봉선 경주 그림'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연중무휴) 플레이스 씨에서 전시되며 입장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경주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플레이스 씨 누리집(https://placec.co.kr/) 또는 전화(054-745-5200)로 문의가 가능하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내면에 심어진 상처의 씨앗 작품이 전하는 담담한 위로

대구아트웨이 청년작가 '차오'展
다음달 20일까지 스페이스1에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아트웨이는 '청년키움프로젝트' 세 번째 릴레이 개인전을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스페이스1에서 진행한다.

차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이 겪는 아픔과 그로 인한 내면적 성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통해 내면을 발견하고 흠어진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과 드로잉 작업으로 표현했다.

대표작품 '심지 않은 씨앗'은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이 작업은 타인이 심어준 상처가 마치 내면에 심은 씨앗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단순히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으며 혼란과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차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상호작용하며 내면의 아픔과 강인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상처를 이겨내고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평론 글과 전시정보는 대구아트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김천, 멸종위기동물을 예술로 말하다... 3인 3색 아티스트 토크쇼 '눈길'

고상우·김창겸·금중기 작가전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 호응
지역민의 환경문제 인식 제고

김천시는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특별전 아티스트 토크를 사전신청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시 부대행사로 열린 이날 아티스트와의 만남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해설로 시작한 전시 투어, 작가와의 토크, 현장 질문,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작가와의 토크에는 야생동물을 초상화 형식의 디지털 회화로 그려내는 고상우, 전통 문양의 꽃과 동물 형상을 3D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선보이는 김창겸, 조각으로 동물에 대한 존중과



공생을 성찰하는 금중기 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풀어냈고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즉문즉답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

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김천시는 자녀를 동반한 참여자들을 위해 동물 페이스페인팅, 오삼이 탈인형 퍼포먼스, 드로잉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보고 즐기는 전시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30대, 김천시 율곡동 거주)은 "아이 그림을 좋아해서 신청하고 관람 왔는데 평소 생

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생태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벤트도 많아서 그림만 감상하는 전시회보다 아이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행사에서 "한 번쯤 멸종위기동물, 환경문제 인식도 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전시회"라며 "아티스트와의 만남 충분히 즐기시고 더욱 많은 분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도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시는 이달 14일까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전시해설, 드로잉 체험, SNS 전시 후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54-420-6186-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오기와 수기의 도자기 핸드페인팅'

22일까지 누정갤러리에서
자작나무·봉화정자 등 11작

오는 22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갤러리에서 '오기와 수기의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주제로 전시회가 개

최된다. 도자기 페인팅은 초벌구이 된 도자기 위에 도자기 안료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린 후 유약 처리하고 1250°C 고온으로 재벌구이해 만드는 방식이다.

이번 전시에는 '도자기에 그리다'

의 대표 김인옥 작가와 '그림그린도자기'의 대표 김인숙 작가가 참여해 자작나무와 봉화정자, 사과꽃 필 무렵 등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진 총 11점의 도자기페인팅 작품을 선보인다.

권병희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자기가 주는 아름다움

과 멋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그림, 사진, 서각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누구나 전시 가능한 누정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전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원자력 수레바퀴
침묵의 천사
정현 지음

월성 1호기 망령이 '멸치1g, 바나나 6개'로 대동령을 만든 이유

값 20,000원 / 문의 ☎ 010-7598-7273

"주민 피폭은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

'정보의 홍수' 시대에,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시대에 과연 정론직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진실 보도가 존재하기는 할까.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정국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해 어이없는 촌극을 빚더니 점차 진영 간 싸움으로 비약했다.

탈원전 측과 친원전 측 학자들은 학문적 근거도, 과학적 사실도, 학자적 양심도 다 팽개치고

진영논리에 따라 허술한 자료로, 빈약한 근거로 논쟁이러기보다

논리의 비약이 심한 '패거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원전적인 정영훈 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기폭제였다.

정치권에서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정 교수는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 섭취했을 때의 수준"이라며

"월성의 방사능 이야기는 월성원전 수사를 몰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몰고 왔다...



정현 鄭賢

경북 경주 갑포에서 태어남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단편소설 「행복에너지, 당선으로 등단
장편소설 「판도라의 황아리-애물과 보물-」 출간
제14회 한국참여문학상(소설부문)수상
지식교양도서 「핵(核)의 커밍아웃」 출간
장편소설 「판도라의 황아리-애물과 보물-」 개정·증보판 출간
창작소설 「문무왕(文武)의 비사」 출간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경북문인협회 소설분과위원장 역임
경주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칼럼니스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

■ 특별기고

2025 APEC 정상회의, 그 감동의 드라마는 경주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과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인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지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우가 풍부하다.

특히 국제컨벤션협회(ICCA) 발표 아·태지역 55위, 전 세계 270위 기록 등 전국 기초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APEC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화 시대 지방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모델 역시 경주다.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년), 인도네시아 발리(2013년), 베트남 다낭(2017년) 등 역사·문화 중소도시 성공 개최 사례를 보면 경주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특히 경주는 정상의 경호와 안전, 보안에 위한 입지적 조건도 최고다.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거리로 이동이 매우 짧으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 NGO 등 외부경호에 요새이다.

지난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다.

아울러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지난 2022년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적은 비용으로 도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경주백제컨벤션센터 주 회의장 주변 3km 이내에 103개소, 4463실의 정부대표단 수요 대비 157%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상

용 5성급 호텔 및 스위트룸 등이 10개소, 223실로 숙박도 최고수준이다. 50분대의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군사 3, 민간 1)과 KTX·SRT 등 완벽한 교통망도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 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다.

경주의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 대동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PEC이 개최될 오는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와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 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보여줬다. 이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는 6월 도시 결정을 앞두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준비로 정상회의 최적 도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점과 파급력을 최대한 피력해 반드시 성공유치로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 경주는 APEC 유치 도시 선정의 숙명이자 필연이다.

■ 독자기고

범죄피해자 회복 위한 사회적 울타리 마련 노력

김상엽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트라우마(Trauma)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유래한 정신의학 용어로 전쟁·재난 등 외부의 부정적 충격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흔히 알아 보이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이겨내고 있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범죄피해자'이다.

홍포화돼 가는 범죄에 대한 공포심과 이에 따른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이 맞물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원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피해를 보듬고 지원해 줄 다양한 기관과 제도들이 있다. 경찰은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도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한 이래 2018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심리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로 채용된 피해자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하는 한편 이들을 통한 초기 심리상담, 강력범죄 현장정리·피해자여비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과 각종 기관에 지원 연계 및 회복적 경찰활동·범죄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한 피해자 권의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생계비·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들이 외견상 완벽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지원 문제가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 제도는 훌륭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다양한 기관들에 산재해 있던 제도들을 종합해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활동을 펼치고자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배포했다. 경찰에서 범죄피해자를 마주하지 않는 부서가 거의 없는 만큼 모든 경찰관들이 각종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협

국민적 비판 받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선포했다. 이날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전국지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총유권자 11만1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90.6%가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나'는 질문에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파업한 이후 의사들의 4번째 집단행동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과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해 의료계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확정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되레 의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서 시작된 의정(醫政)갈등에서 의사들이 전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맞서는 형국이 된 것이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이라는 당초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선 수준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국민 법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배려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진료 파행이 중소형 병원으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환자 보호자들은 노심초사다. 그런데도 의사 단체는 더욱 강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는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존중받아 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인정한다.

하지만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익집단으로 비치게 처신했다. 이에 적지 않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리라"는 성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환자를 불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을 헤아려 본다면 휴진은 내릴 수 없는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환자 생명이야 어찌되든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허울뿐이었다. 정부와 의사 중 누구 주장이 옳느냐를 떠나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의사들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일상탈출 울릉도 여행

울 여름,
특별한 즐거움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